

##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혁신리더 토론회

시간이 압박해서 만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내용 있는 토론들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총평을 할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 드리면,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전국 여러 곳에서 많은 토론을 합니다. 많은 토론을 하는데 참 수준이 높다, 이만하면 포항이 앞으로 소위 균형발전의 모범 도시로 성장해 가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오늘 같은 기회에 지역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2단계 균형 발전의 내용에 뭘 좀 더 넣어 달라고 하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게 하는 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점에 우리가 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말로는 얼마든지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여야에, 어느 당에 관계없이 이것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을 뵙고 가려고 결정을 한 것도 맨 마지막 부분에 욕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역 정서로 봐서 ‘그러므로 뭐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바꾸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어느 정당이라도 확실하게 뭔가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또 지도자의 소신으로 채택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또,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어떤 뿌리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 **당분간 균형발전은 우리 한국에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

제가 참여정부 와서 회의를 참 많이 한 대통령입니다. 무지 무지하게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단순 보고회의도 있고 좀 산만하게 이런 저런 얘기를 듣는 회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도 있지만, 뭔가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회의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회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릴 결정 몇 가지를 결정해서, 의결이 아니죠. 자문회의니까... 그러나 자문회의에서 대통령

이 결정을 그때그때 내리고 남은 과제들을 딱딱 매듭을 지어서 주고 그래서 그다음 회의에서 또 보고를 받고 결정내리고. 그럼으로써 정책이 내실 있게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촉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균형발전 토론이 제일 많지 않았는가, 단순히 내부 보고회의까지 포함해서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개 위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성과물을 내놓은 곳이 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보기가 뭐가 달라졌나, 답답하기 짝이 없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프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적인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인프라가 대단히 중요한데, 5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이넥스 공법 하나 얘기했는데, 연구를 시작하고부터 18년 걸려서 이제 오늘 사업용 시설을 오늘 준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긴 호흡으로 멀리 보면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에 투자한 시간, 균형 발전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한테 뿌리내리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발간하고 해 온 투자한 시간이 그대로 계속만 되어 간다면 균형 발전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균형발전 정책이 계속 살아갈 것인지, 그 점에 또 걱정이 많지요.

여러분들께 사실은 SOS를 치러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뜻이 있으면 그것을 현실에 실현하고자 하고, 그 뜻이 사리에 맞아서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상과 제도를 역사에 뿌리내리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당분간 균형발전은 우리 한국에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상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 수도권 인구가 이미 절반, 균형발전은 포퓰리즘과 거리 멀어

EU 같은 기구는 국가를 넘어서 낙후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얘기 나오는데,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제일 먼저 언론에 영합해야 그 사람이 포퓰리즘하는 사람입니다. 언

론에도 영합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 무슨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모욕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균형발전이 포퓰리즘이냐. 정말 인기 없는, 정치적으로 별로 수지 안 맞는 정책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이미 절반인데요, 이대로 가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의 수도권 국회의원이 국회를 전부 장악하는 것이죠. 지금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같은 것도 그 국회에서 전혀 채택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의 지배권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다 중앙, 중앙 권력입니다. 이병석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은 속성상 중앙 권력이거든요. 지역 이익을 많이 대변하지마는, 그렇습니다. 포퓰리즘 정치를 한다면 당연히 수도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균형 발전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양심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등주의냐?’ 그렇게 물으며, 우리 균형발전위원장은 ‘평등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분산과 균형이 효율적입니다. 평등이 아니라 효율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오늘날 평등보다 효율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평등이 아니라 효율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등해야지요. 평등, 그거 귀한 가치 아닙니까? 서울 시민과 지방 주민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균형있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낙도 학생들을 초청했는데, 학생 6명에 선생님 3명 있는 섬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정말 고민됐습니다. 문을 닫을 것이냐, 오랜,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그들의 삶에 뭐라고 가치나 효율로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뿌리가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을 이주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교육을 제공해야 하느냐. 그것이 국가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효율도 중요하지마는,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율의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집적의 이익은 한계가 있습니다. 집적의 비효율이 735만 명이라고 했죠. 우선 서울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수도권을 더 비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도시를 하면 공공기관이 이전합니다. 그 빈 땅을 정부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이자면 그냥 팔아 버리면 됩니다. 입찰 붙여서 가장 비싼 값으로 팔아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조금이라도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비록 부담해야 될 비용이지마는, 그것 그냥 넘겨주면 서울시가 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넘겨 줄 수도 없고, 비싼 돈을, 값을 다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의 용도를 좀 더 서울시에 숨 쉴 공간이 열리는 쪽으로, 녹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줘라, 결과적으로 이것은 서울시를 금전적으로는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다 안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산공원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용산공원 90만 평, 그 엄청난 토지를 사실상 정부가 안 팔고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서울시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는 제품이 많이 나오는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전문가들,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라야 경쟁력 있는 도시죠. 서울 사람들도 조금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서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바로 균형 발전입니다. 이걸 좀 멀리 보지 못하고, 큰 시야로 보지 못하고 반대하

고 그렇게 반대해서 반 토막을 내 버리고, 행정도시를.... 반토막을 내 버렸어요.

행정수도가 왜 나와야 되느냐, 서울 안에 있으면 서울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 집 땅값 올라가기를 원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아파트 집값 올랐다고 내렸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공무원이 어떻게 국가 정책을, 균형 정책을 정말 뜨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의미에서의 지방이 무엇인지 지방 사람들의 얘기를 얼마만큼 듣기야 듣죠. 논리적으로 듣고 정서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균형 발전 정책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나 모든 정책에서 균형 발전 정책은 한 차원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반 토막을 딸랑 내놨어요. 여러분 도와주셨습니까? 행정수도는 포함하고 관계없다는 것이 포항 시민들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짧게 보면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멀리 보아야 진정으로 가치가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보면 이익은 이익이고 가치는 가치입니다. 멀리 보면 바로 가치 있는 일이 이익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웃으며) 제가 괜히 영똥한 얘기를 해 가지고 시뻘거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정말 각 지역 분들에게 정말 섭섭하고 아쉬웠습니다.

### 국가 미래 내다보는 전략 차원에서 균형발전 문제 봤으면

우리가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자, 단순한 이익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 1단계만 하고 싶어서 1단계만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 지지 세력이 취약하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한 것이 1단계입니다. 또 억지로 억지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각 지방의 지방 감정까지 이용해 가면서 겨우 겨우 해 온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조금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기업이 올 것 같습니까? 포항 테크노파크에는 상당한 기업이 있어서 뭔가 가능성의 싹이 보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우리 균형 발전 정책으로….

지난 30년 동안 균형 발전, 균형 발전 다 얘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방지’ 이렇게 얘기했었죠. 소극적인 표현이지요. 수도권 집중 방지, 지방이 야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집중이나 막아라,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방 중심의 사고, 그래서 지방화 전략, 내가 후보 때는 지방화 전략이라고 공약했는데, 그것이 균형 발전으로 다시 이름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지방의 주체적 관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죽어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것 가지고 유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기업이 못 내려오는 이유가 사람이 없어요.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되돌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을 되돌려오자면 기업이 와야지요. 순환 고리에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되돌려야 됩니다.

## 세금 차등 방안 등 획기적 2단계 균형발전정책 마련 중

2단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 획기적으로 보고… 지금껏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라, 균형발전위원장이 열심히 뛰어서 만들어 왔습니다. 벌써 만들어왔습니다. 오늘 보고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

인 내용으로 만들어 왔는데 제가 둘러보냈습니다. 재검토... 그 길로는 안 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나, 균형발전위원장이 머리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세금을 차등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뭔가 버겁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제부처하고 얘기해 보니까 세수에 부족 생기고, 뭐 생기고, 변화에는 항상 그런 것이 따르지 않습니까? 세수도 부족이 생기고 조세 체계가 무너지고 또 뭐가 어찌고, 또 이런 이런 부작용이 따르고... 그 래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보니까 성경룡 위원장, 아무리 대통령이 밀어 주지만, 하나하나 갖고 와서 다 일러바칠 수도 없고, 밀렸어요. 밀려서 1단계 갖고 왔길래 소위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해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의 산업적 부분은 산자부가 하고 처음부터 균형 발전의 핵심을 혁신 클러스터로 봤기 때문에, 산자부에 균형발전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해 보니까 삶의 질, 삶의 조건까지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일반적인 지역의... 말하자면 생활 조건까지를 포함하면서 행정자치부로 다시 그 기능을 보완시켰습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건 하고 행자부에서 다시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2개의 기획단하고 위원회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간보고를 좀 받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어떻든 지금 그렇게 밀고 가고 있습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완결 지을 수 있을까, 저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무리 과제, 제도화까지 할 것, 또는 제도화된 것을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는 정착화 단계, 마무리 단계, 제도화 단계, 지금 정책을 전체적으로 분류해 가지고 의제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의제화가 낮은 목표이고 높은 목표는 제도화입니다.



근데 지금이 의제화 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온 나라가 지금 정책을 놓고 들쭉날쭉 하는 대선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공약해야지요. 공약해야 지방에서 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포항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지당을 바꾸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공약을 받아내면 당 안 바뀌도 괜찮습니다. 공약을 받아 내십시오.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

### **퇴임 후 균형발전정책 추진한 사람의 도덕적 의무로 고향 내려갈 것**

균형발전정책을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수준으로 밀고 갈 수 있게 전략적 역량을 한번 결집시켜 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시스템, 시스템하면서 다 해 났지만 사람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저는 지방의 역량이 얼마 만큼 활발하게, 얼마 만큼 열정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20년 30년 뒤에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저도 정치하면서 익힌 노하우가 적지 않은데 국가 경영하면서 익힌 정책적 노하우도 적지 않은데 왜 고향 가야겠습니까? 아직 나이도 있습니다. 법만 안 그러면 대통령 한번 더 나와도 늙었다 소리 안 들을만한 나이 아닙니까?(웃음) 내려갑니다.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사람의 도덕적 의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려가서 활동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힘을 한번 모아서 꼭, 저는 안 지켜 줘도 좋습니다. 이 정책만은 꼭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